

사회변화를 위한 민주도 실천 연구방법, 참여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정지웅

1. 머리말

참여란 말이 정치나 사회에서 유행처럼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참여연구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정부의 농림행정에서 참여행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노무현정부를 참여정부라 일컫기도 한다. 그에 앞서 참여연대를 주도한 박원순이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참여”란 용어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종북 세력이란 의혹을 받으면서 참여가 진정한 민주적 방법의 전제일까 하는 회의도 있다.

김대중정부시에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지휘하던 강문규회장(전 YMCA 총무)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간 세계참여연구보급운동 아시아지역 총책이었던 인도학자 탄돈(Rajesh Tandon)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로부터 참여연구에 대한 아시아지역 첫 모임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에서 잠시 배웅회합을 가졌을 때, 한반도의 당면과제인 남북통일을 참여연구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는 없겠는지를 암시해 준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체제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아 이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이 글을 통해 이 연구방법에 대한 배경과 현실을 음미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구는 실제행동인지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이 정립, 제안된 지 얼마 안 되어 1980년대부터는 사회과학은 물론 일부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도 세계를 풍미하는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 바켄(Bakken)의 새 유전지역에서 참여 실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사회/인류학과 교수 고어햄(Gary Goreham) 박사가 이 연구방법으로 그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자 한국에 다녀갔으며 그의 연구사업을 서울대 농생대(대학원 농산업교육전공), 공주대(대학원 교육학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에서 발표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방법이 어떤 방법이기에 전 세계의 학계와 실제에서 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2. 참여연구의 대두와 확산

참여연구법(participatory research method)은 Convergence란 정기학술지를 발간하는 국제성인교육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가 1978에 정립, 제창한 새로운 연구방법이다. 그 때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론연구와 조사연구가 과학적 방법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이들은 실제로 사회변화보다는 이론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낭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연구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이론도 실증적으로 빠르게 세우고 실제 변화도 가져오도록 만드는 실질적 참여연구를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1838년 콩트(A. Comte)에 의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고 사회(과)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조사와 계량적 접근을 많이 적용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에 도전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문화인류학계서의 주된 방법으로 참여자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과 주요인사 회동(meeting with key informants) 등이 특히 미개사회의 실상을 밝히는 연구방법으로 부각되었다. 이 두 접근 방법들은 서로의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대의 방법에서 보완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발전을 꾀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 방법이 인간이 사는 실제 생활이나 사회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론이나 따지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하여 반성을 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는 종래의 조사중심의 계량적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참여를 간과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도전하여 대두된 실용적 연구방법으로 출현한 대표적인 것이 실천연구(action research)와 참여연구였다.

실천연구는 1940년대로부터 연구가 실제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실천(action)과 현장에의 응용을 강조하는 응용연구로서 한국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연구란 용어로 유행이 되어 왔다. 1940년 Tavistock연구소에서 처음 action이란 용어를 쓰고 1949년 이 연구소의 연구원 클러(Curler)의 연구논문이 나왔고, 이 연구방법을 본격 활용한 학자는 위상심리학자 레빈(Kurt Lewin)과 동료들이었고, 사회개발분야에서는 1965년 화이트(Whyte)와 해밀톤(Hamilton)이 Tavistock 연구소의 연구내용과의 연구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분석 연구한 것이 있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교육학에서는 현장연구란 말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현장연구나 실천연구들은 자연과학의 실험실 연구와 같이 실험대상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집단의 특성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입장과 시각을 최대한 반영시킨 민주적 접근에 의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서 질적 접근의 중시, 실제적 변화, 연구대상자의 연구에의 주체적 참여란 세 이념을 가지고 국제성인교육협회(ICAE)가 1978년에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새로운 연구방법이 곧 참여연구였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AE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홀(Budd L. Hall)이 ICAE 정기학술지인 *Convergence*의 8권 2호(1975)에 “참여연구법: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접근방법”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뒤 이어 많은 학자들이 큰 호응을 보였고 성원을 하였다. 1976년에는 하나의 실제적인 참여연구로 스웨덴의 인류학자 스완츠(M.L. Swantz)가 탄자니아에서 주민들을 연구의 주체자로 참여시키고 단계별 연구과업을 그들과 합의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시한 후 평가도 함께 한 후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학습사항을 새로운 이론과 지식으로 제시한 사례를 학술지 *Convergence*에 다른 관련 논문들과 함께 발표되면서 그 방법론을 보완하였었다. 이어 1977년 9월에는 참여연구에 관한 유럽회의가 열려 많은 국제기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좋은 호응을 받았고 그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참여연구란 용어를 새로운 학술용어로 정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8년에 ICAE가 공식적으로 참여연구법을 새 연구방법으로 제창하고 세계로의 확산사업을 운동으로 벌이기 시작할 것을 선포하면서 “참여연구란 농촌주민이나 근로자와 같은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주체가 되어 함께 영농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연구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한 운동의 하나로 아시아 참여연구회(PRIA: Society for 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가 결성되고 인도 뉴델리에 사무국을 두고 탄동(R. Tandon)이 조정책임을 맡았었다.

PRIA의 첫 번째 아시아지역 참여연구세미나가 1979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성인교육협회(ASPBAE: Asia-Pacific Bureau of Adult Education)의 후원으로 태국에서 열려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참여연구를 촉구하였다. 이 세미나에 한국사회교육협회(현재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유사한 실천연구사업을 벌였던 필자가 참여하였다. 1975년과 1977년에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용인 남사면 3개의 마을에서 3명의 대학원생/졸업생을 마을에 거주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협동사업을 벌이게 한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차 이 사업이 하나의 참여연구 사례로 인정되어 발표되었다. 1980년 4월에는 ICAE 주최 제1차 세계참여연구대회가 유럽 유고슬라비아의 류블리아나(Ljubliana)에서 열렸고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의 한 마을의 부녀회가 주도하여 공동구판장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초대를 받아 원고를 써 보낸 바 있다. 비록 당시 유고와 비수교관계인지라 출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필자가 대회에는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발표원고는 다른 참여자에 의하여 대신 읽혀지고 출간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그 후 2005년 정년퇴임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학의 지원을 받고 국제(국제농촌사회학회, 국제경험학습학회 등) 및 해외학회(미국농촌사회학회, 미국지역사회개발학회, 아시아농촌인간자원개발협회 등)에 수십 번 세계 사회과학계 학회에 참여하면서 이 참여연구가 얼마나 큰 호응을 받고 넓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하여 감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천연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열등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가 되니 그 결과는 실제적 변화가 되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이론과 지식의 창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종래 실천연구란 용어를 쓰던 학자들은 이 참여연구와 입장을 같이하여 ‘참여적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란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참여연구는 주민들의 교육, 조직 및 다른 개발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하는 것이며 그러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데 직접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발활동을 강조하는 각종 UN기관 - 예컨대 UNESCO(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국제아동기금), FAO(국제식량농업기구), ILO(국제노동기구) - 과 다른 많은 개발기관의 인기를 모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모든 응용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참여교육/훈련, 참여조직, 참여개발, 참여계획, 참여평가, 참여커뮤니케이션, 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파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결과를 평가할 때까지 종래의 연구 같으면 연구대상이 되고 말았을 대상 집단을 참여시켜 참여계획, 참여수행, 참여평가의 방법을 쓰게 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쓰인 모든 수단과 자료들은 그 연구결과를 이끈 검증자료가 되어 관련 이론과 지식을 분명히 제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이 연구방법을 즐겨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참여연구 활동

ICAE가 참여연구란 용어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처음 소개했던 1975년에 서울대 농과대학과 수의대학이 있었던 수원캠퍼스에는 농업과학연구소란 부설연구소가 농업개발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아시아재단이 지원한 농촌개발실습장사업을 하나의 대형 실천연구사업으로 개시하였었다. 농촌지도요원을 양성하는 농업교육과 지도교육전공의 학생들에게 농촌생활과 농민과의 접촉경험을 주기 위하여 용인 남사면의 3개 지역(아곡, 방축동, 각궁/아리실)을 주민과 합의하여 선정하고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을 협동적으로 이룩하도록 실습장화하는 실천연구사업을 본인이 계획하여 아시아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농업개발연구소의 공식 연구로 승인 받았는데 이 실천연구사업을 주민주도로 수행한 것이 참여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계기를 가져왔다.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 석사과정을 마친 본인이 농대 농업교육과에서 교직교과 강사로 있으면서 1969부터 3년간 국립 필리핀대학교 로스바노스 캠퍼스(UPLB)에서 지역사회개발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동안 학위논문과 관련된 대학사회교육사업을 탐구하는 중 사회실습장(Social Laboratory)이란 실천연구사업모형을 개발한 장지웬(Chi-wen Chang) 석좌교수의 이념과 현장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1972년 귀국 후 몇 년 동안 마침 수원캠퍼스와 그리 멀지 않은 용인 남사면에 주 1회 농촌진흥청 FAO 파견 지역사

회개발전문가 키드(David Kidd) 박사와 한 마을에 나가 유숙하면서 일을 도우며 전문적 견해를 나누며 교분을 쌓았는데, 이 남사지역 일대에서 1975년부터 새로운 전공으로 시작된 농촌지도교육전공을 기점으로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자연과학연구 분야 학생연수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실험실이 꼭 있어야 하듯이, 농촌지도요원을 양성하는 농촌지도교육전공의 연구나 양성수련에서 농촌마을을 실습장으로 하여 농민과 함께 일하는 체험을 갖게 하도록 시작한 이 사업에는 3개의 농촌마을에 각각 1명의 개발요원(대학원생)을 마을에 머물게 하면서 그 주민들이 협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잘 살기 사업을 잘 하도록 돕게 하는 것이었다.

그 중의 한 마을(방축동)에서는 시장과의 거리가 10km 이상이라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부녀회를 조직하고 회원의 공동출자로 공동구판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규정까지 정하면서 구판장의 기금을 모았다. 물론 이 마을을 연구마을로 지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연구자나 개발요원이 정한 것이 아니고 부녀회원들의 발의와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이득도 그들의 몫이고 잘못될 때의 책임도 그들 스스로가 지는 것이었다. 이 연구과정에서 회원 45명 중 30명(주로 40, 50대 부녀)이 기능적으로 비문해(非文解)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농촌 부녀자들의 문자해득의 실정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른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규모로 임의표본조사를 실시해 보니 전국 15세 이상의 농촌여성 52퍼센트가 초등학교 3학년의 문해 수준에 미달함을 밝혀낸 바도 있다. 물론 실습장 활동에서 이러한 낮은 문해 수준의 실정은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실이 당시 한국지식인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여겨져 학계에서 그 문제를 은밀히 제시하였을 뿐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들 농촌부녀들이 과반수 글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이며 살기에 분주하여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가 별로 없어 보였다는 사실이다. 최근 2000년대에 와서야 이들 비문해 여성 수백여만 명이 수백여 개의 교육복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문해율을 나타내던 통계의 허구성과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적 소외가 얼마나 은폐 혹은 무시되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토록 문해수준이 낮은 마을부녀자들이지만 구판장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단기간 동안 상당한 이득을 낸 성공적 사례가 1979년 PRIA 세미나와 1980년 ICAE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후 1981년 말에는 한국사회교육협회(당시 회장은 김종서 서울대 사대 명예교수)가 주관한 첫 참여연구세미나에서 연구마을에서 주재했던 당시 대학원생(김선요 서울여대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 물론 이 세미나에서는 참여연구의 이념과 특성이 발표되었고 관련된 몇 개의 사례들이 함께 발표되었었다.

이러한 참여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사회과학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점에 힘을 얻어 본인은 국내에서의 학술활동과 각종 강의와 논설에서 참여연구를 소개하고 촉구, 적용하였다. 1983년 여름에는 본인이 서울대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부소장(당시 소장은 고 이질현

명예교수)일 때에 UNICEF 농촌개발사업인 나주 반남면 지도자집단에게 참여계획세미나를 3일에 걸쳐 수립하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원주에서 열린 한국사회교육협회 연차대회에서 “사회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사회교육의 방법이 곧 참여연구의 자료수집활동이 되기도 함을 밝혀 주었다. 그리고 1986년 7월 12~18일에는 이천 설봉호텔에서 한국사회교육협회와 PRIA가 공동주관한 ‘참여연수 방법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연찬회(Regional Workshop on Participatory Training Methodology)’를 열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에는 경기도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설치하고 수원시 서울대 농대로 하여금 1993년부터 제1기생 50명의 도내 최고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6개월간 주 1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 전공주임이었던 고 최민호 교수가 학장을 도와 이 과정을 운영하였고, 본인은 수강생 농민후계자들이 곧 참여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참여연구>란 교과를 맡았었다. 그리하여 수강자들이 원하는 대로 매주 정규강좌 수강 2시간 전에 모여, 참여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특별모임을 1년간 운영하게 되었었고, 이 모임에 끝까지 참여하고 마무리를 지은 농민은 2명이었고, 수행한 연구과제는 3개였다. 그 후 참여연구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도 참여연구회원이 되어 외국연구의 사례를 탐구하고 보고서를 우리 글로 번역하여 1995년 참여연구법과 그 사례(서울대출판부)란 제목의 책자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의 참여연구로 시흥 무랑저수지 부근 한 마을의 작목반장이 중심이 되어 저수지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한 축산작목반원 전원이 자조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저수지오염방지를 수행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이들의 허락을 받고 본인은 이 사례를 3명의 이름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에 발표하였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영문논문을 만들어 국제농촌사회학회(IRSA)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본인이 참석한 60차 미국 농촌사회학회(Annual Meeting of the Rural Sociological Society, August 13-17, 1997)가 마침 ICAE 사무국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그 사무국도 방문하였고, IRSA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재정리하여 전문학술지인 Convergence 31권 3호(1998년)에 “Participatory research and anti-pollution dairy farming in Korea”이란 제목으로 게재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참여연구물이 수백 편에 달하고 참여연구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경우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국내 지역사회개발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례는 뒤늦게 2000년대에 들어와 2편이 있을 뿐이다. 즉 2006년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 전공생이었던 강상빈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참여연구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사례가 있고, 몇 년 뒤에는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대학원생이었던 김정울(현재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서울의 취약지역인 강서지역에서 청소년회관에 근무하면서 강서‘푸른이학교’를 참여연구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례였다. 전자는 그 요약본이 지도교수(김성수 명예교수)와의 공동발표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고, 후자의 사례

는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연구를 특집으로 다룬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년 6월의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참여연구사례와 학위논문 구성의 방법론 고찰”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4. 맺음말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이요 연구방법이기도 한 참여연구가 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지난 삼십 수년에 걸쳐 각계각층에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막상 경제발전과 민주화에서 다른 작고 약한 나라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참여연구의 활약이 매우 미약한 편이며 15년전부터 불어닥친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정부는 참여행정, 참여정부란 말까지 써가면서 소외된 민초(民草)를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아직 연구의 측면에서 그들 민초들을 주체로 삼아 참여시키는 면에서는 미흡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참여연구를 모든 학문에서 적용하여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연구결과 이론도 실용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싸이와 같이 세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구자는 적어도 세상을 보는 좌우 편중 지양의 올바른 가치관과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연구 참여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합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농민들과 여러 해 일하면서 그들이 가진 농사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박사학위를 가진 수준 높은 학자들에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이들을 조금만 도와 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일하면 학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믿음은 최근 많은 농민의 혁신기술에 의한 획기적 소득증대와 사회적 기여에서 잘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